

지방의원 해외연수(미국) 귀국 보고서



서대문구의회

■ 目 次 ■

I . 해외연수 계획

1. 해외연수 개요	1
2. 연수단 구성 및 업무분담표	2
3. 연수일정표	3

II . 방문국가의 일반현황

1. 미국	4
-------------	---

III . 주요기관 방문

1. 세리토스(Serritos) 시청 및 의회	6
2. 알타데나 시니어 센터	11
3. SF공공도서관	13
4. 나라뱅크 방문	15

IV. 주요도시 및 국립공원 등	17
-------------------------	----

I. 해외연수 계획

1. 추진방향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지방자치제도와 행정, 복지, 재정, 건설 및 문화시설 등을 비교시찰하여 폭넓은 견문과 전문지식을 함양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구와 교류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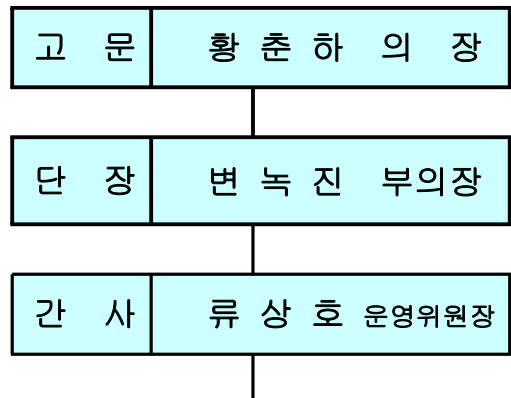
【추진방향】

- ☐ 국제화의 흐름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의원의 국제화 능력제고
- ☐ 해외 지방의회의 의정 및 자치단체의 견학 및 교류를 통하여 우리구 의정의 선진화와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
- ☐ 공식일정 등 기본여비만 지원하고 부족분 개인부담

【추진개요】

- ☐ 연수기간 : 2011.9.23(금) ~ 9.30(금) 【7박 8일】
- ☐ 연수국가 : 미국(서부)
- ☐ 참 가 자 : 19명(의원 13명, 수행공무원 6명)
- ☐ 주요 비교시찰 방문지
 - 세리토스 시청 및 의회 방문
 - 샌프란시스코 시 및 도서관 답사
 - L·A 노인사회복지국 복지시설 견학
 - 나라뱅크 및 금융제도 견학
 -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견학
 - 기타 국립공원 등 문화답사

2. 연수단구성 및 업무분담표



분담 업무	의 원	수행 직원
지방자치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황춘하, 류상호	나윤수, 곽태성
행정복지에 관한 사항	변녹진, 홍길식, 김재관, 김영원, 윤유현	조희동, 김미영
재정건설에 관한 사항	오성자, 김호진, 이문복, 이기돈, 백인기, 김다순	정윤기, 이영순

【수행공무원 업무】

수행 직원		수행 업무	비고
직 급	성 명		
행정6급	나 윤 수	* 의원 수행업무 세부추진사항 총괄 * 예산집행 및 정산	
행정7급	조 희 동	* 의회홍보 및 방문기관 협력 * 방문지 촬영	
행정7급	곽 태 성	* 의원 의전 * 방문기관 공식행사 보좌	
행정7급	정 윤 기	* 방문기관 의정활동 보좌 * 방문지 자료수집	
별정7급	이 영 순	*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 방문기관 간담회 기록	
별정7급	김 미 영	* 방문지 기념품 및 홍보책자 등 준비 · 전달	

3. 연수 일정표

날 짜	장 소	교통편	시 간	주 요 행 사 일 정	비고
제1일 9/23 (금)	인 천 샌프란시스코	OZ214 전용버스	14:30 16:40 11:15	인천 국제 공항 미팅 인천 국제 공항 출발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 후 시내에서 중식후 >> SFO 시청 답사-- 현황 파악 > SFO 메인도서관 견학 * 나라뱅크 방문 미국의 금융제도 조사 * 샌프란시스코 시내견학 및 교통시설 파악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HILTON FREMONT NEWARK HOTEL CLASS	
제2일 9/24 (토)	샌프란시스코 요세미티 프레즈노	전용버스	전일	호텔 조식 후 캘리포니아 대농장지대--레이커스 필드 -농장견학후 요세미티 국립공원 방문. 프레즈노로 이동후 건포도 농장 방문--건포도 생산 시설등 견학 석식 및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HOTEL : HOLIDAY INN DOWNTOWN CLASS	
제3일 9/25 (일)	프레즈노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전용버스	전일	조식후 라스베가스로 이동 모하비사막속의 철도 중심지 바스토우-철도관련 시설 견학 서부 민속촌 캘리포니아 은광촌 견학 라스베가스 도착 컨벤션센터 회의장 등 레저도시 기능 견학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LUXOR LAS VEGAS 또는 동급	
제4일 9/26 (월)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 라플린	전용버스	전일	라스베가스 출발 아리조나의 교통 중심지 킹맨에서 휴식 그랜드캐년 도착 후 국립공원 운용 및 실태 파악 콜로라도 강변 신흥도시 라플린 -수자원을 이용한 농경시설견학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OTEL : EDGE WATER RESORT 또는 동급	
제5일 9/27 (화)	라플린 로스엔젤레스	전용버스	전일	기상 후, 호텔 출발 바스토우에서 조식 로스엔젤레스 도착 중식 ■ 노인사회복지국 복지시설 방문 복지정책 및 현황 조사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JJ GRAND HOTEL 또는 동급	
제6일 9/28 (수)	로스엔젤레스	전용버스	전일	기상 후 조식, ■ 세리토스 시청 방문 -지방정부 관련현황 등 견학 중식 후 문화탐방(LA 시민의 장터인 파머스 마켓)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제7일 9/29 (목)	로스엔젤레스	OZ 203	00:30	로스엔젤레스 출발 / 인천 향발	
제8일 9/30 (금)	인 천	OZ 203	06:00	인천 도착후 해산	

II. 방문국 일반현황

1. 국가개요



- ◆ 수도 : 워싱턴 DC (Washington, D.C.,)
- ◆ 면적 : 963만km² (한반도의 42배)
- ◆ 인구 : 약 3억2천만명 (2010년 현재)
- ◆ 종교 : 개신교(56%), 로마카톨릭(28%), 유대교(2%)
- ◆ 언어 : 영어
- ◆ 민족 : 백인(73%), 흑인(22%), 인디언과 동양계(5%)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13개 식민지를 '주(州)'로 하는 미합중국을 탄생시켰으며, 현재는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공화국이다. 이외에도 해외의 준주와 자치령으로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태평양의 여러 섬 및 파나마 운하지대 등이 있다.

2. 정치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화제 체제이다. 현재의 국가 원수는 Barack Hussein Obama 이며, 의원제도는 상원과 하원의 2원제로 상원의원은 정원이 100명으로 각 주에서 2명씩을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0%정도가 개선이 된다. 하원의원의 정원은 435명으로 각 주에서 주의 인구비례로 선출해서 2년마다 개선된다.

3. 경제

광대한 국토와 자연을 가진 미국은 대부분 평지가 넓고 온대기후여서 자연조건의 혜택을 받은 세계적인 농업지대이다. 그리고 남북전쟁 후의 공업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기계화농업이 발달되고, 아이티, 군수품 등이 미국의 선진국가의 바탕이 되었다.

4. 기후

본토의 기후는 서경 100°부근을 경계로 하여 습윤한 동부와 건조한 서부로 크게 나누어 진다. 북동부는 대륙성기후, 남동부는 온대 및 아열대기후,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중해성기후 및 사막기후이다.

○ 년평균기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샌프란시스코	9.6	10.9	11.8	12.7	13.6	14.8	15.0	15.3	16.2	15.4	13.0	10.2
뉴욕	-0.2	0.8	5.7	11.3	17	22	24.8	24.1	20.1	14.1	8.6	2.5
LA	13.3	13.9	14.6	16.0	17.4	19.3	21.6	22.1	21.4	19.2	16.7	14.2

5. 시차

한국시간	하와이 표준시	알래스카 표준시	태평양 표준시 SFO.LAX. LAS.SEA	산악 표준시 덴버 피닉스	중부 표준시 시카고 내슈빌	동부 표준시 NYC/WAS 보스턴	대서양 표준시
시차	-19시간	-18시간	-17시간	-16시간	-15시간	-14시간	-13시간

미국은 썬머타임을 실시하므로 3월 둘째주부터 11월 둘째주까지는 - 1시간씩 줄여든다.

Ⅲ. 주요기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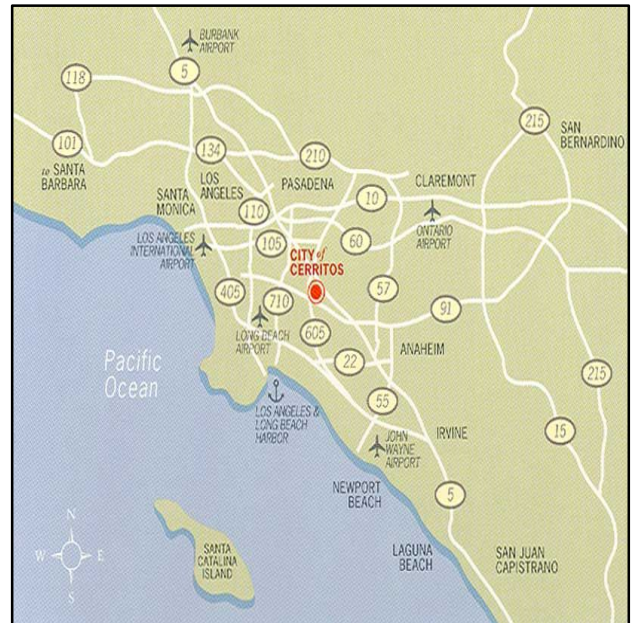
1. 세리토스(Cerritos) 시청 및 의회, 시립 도서관

▷ 방문일시 : 2011. 9. 28(수) 09:00 ~ 11:30

□ 세리토스시(市) 일반 현황

○ 위 치

세리토스(Cerritos)시는 오렌지카운티에서 LA카운티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도시로 LA카운티 소속 여러 시(city) 중 하나이며, 오렌지카운티와 LA카운티의 중간부분에 위치 있다. 교통을 보면 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91번 프리웨이와 남북으로 뻗어 있는 605 프리웨이 그리고 LA국제공항과 연결되는 105번 프리웨이를 비롯해서 5번 프리웨이, 405 프리웨이, 22번 프리웨이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 인 구

세리토스시는 각각의 특색 있는 문화를 가진 다민족들이 조화를 이루며 모여 사는 미국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로 호평을 얻고 있다. 인구 약 5만 3천명의 세리토스는 백인 비율이 27% 미만인 반면, 아시안 인구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백인이 마이너리티인 시로써, 자녀교육을 위해 지금도 꾸준히 한인들을 비롯하여, 교육열이 한인 못지 않은 중국인, 인도인 등, 아시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인 인구가 거의 20%로 한인의 인구비율이 백인과 히스패닉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 특 색

세리토스시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세리토스 시민들은 미국 서부지역에서 중산층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곳으로, 세리토스 만한 곳도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ABC 통합 교육구로 유명한 세리토스는 교육구내에 세리토스 칼리지와 SAT 성적 1,350점 이상을 항상 상회하는 남가주 최고의 명문 위트니 고교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초등학교 19개교, 프라이빗 스쿨이 7개교, 그리고 성인학교가 있다. 특히 세리토스는 초등학교를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이주하는 기현상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최근에 오픈한 유명 마켓을 비롯하여 총 4군데의 대형 한인 마켓과 5개의 한인 은행, 그외 유명 한인 식당들과 수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성업 중에 있어 한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특히 부에나 파크, 플러튼 시 등과 이웃하고 있는 관계로 오렌지 카운티와 엘에이 카운티 중간 지역에 위치한 중부지역 한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 세리토스 시청 앞 광장에서 》

□ 세리토스시(市) 및 의회 현황

- 의원 : 5명(2년마다 개선 3명/2명)
- 시장 : 의원중에 호선(임기1년)
- 예산 : 1억 2천만달러
- 직원 : 일반 200명, 파트타임 250명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이나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관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시장-의회체제'와 '시지배인-의회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시장-의회형'의 경우 의원과 단체장을 모두 주민이 직선하며, '시지배인-의회형'의 경우 의회에서 시지배인(시장)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1956년에 시로 승격된 세리토스시의 경우 '시지배인-의회형'으로 5명의 시의원이 매년 1명씩 순환하여 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시의원은 2년마다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데 의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차로 3명을 선출하고, 2년 후에 2차로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시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경우처럼 유급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시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안건 심사 최소 72시간 전에 의안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회의 방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회의장면은 TV로 생중계하여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 세리토스 시의회 조재길 의원의 현황 설명 》

세리토스시의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세리토스시는 대규모 자동차 판매상이 20여개나 밀집해 있을 정도로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도시로서, 상업활동 종사자에게 부과되는 판매세 수입, 개발관련 부동산세, 예금이자, 수수료 수입 등 만으로도 시의 재정운영이 가능해, 일반 시민들에게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었다.

□ 세리토스 시립 도서관

2005년도에 무려 4,000만 달러를 들여 완공한 세리토스 도서관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에 아동도서 8만권을 비롯한 총 30만권 이상의 방대한 도서 및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미술관 뺀치는 수준 높은 전시회가 1년 내내 열리는 지역사회 명물이다. 또한 일류 호텔을 방불케 하는 내부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들의 눈길을 끄는 대형 수족관과 40피트 높이의 공룡 화석 모형도 설치되어 있어 LA남부와 오렌지카운티 북부 일대 주민들이 가족 나들이를 위해서도 즐겨 찾는다.



《 세리토스 시립 도서관 내부전경 및 현황 설명 》

시설 및 규모 면에서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세리토스 시립도서관은 시 단위 공립도서관으로는 최대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300대가 넘는 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첨단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도서관 개방은 연중무휴로 일주일 내내 열어 놓고 모든 주민의 지식욕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문화와 예술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이 학생이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었다. 도서관 이용은 주민과 시 공무원, 세리토스 소재 학교 재학생에게는 무료이나 타 지역 주민은 100달러짜리 이용카드를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다.

□ 방문 후기

세리토스 시청(시의회)을 방문하니 한국인 조재길 시의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한국 이민자의 인구가 시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구성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아직까지 소수민족에 불과한 한국인이 미국 도시의 시의원으로 두 번이나 당선되어 당당히 활약하고 있는 것에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세리토스시 지방행정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행정과 입법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와는 달리 행정부와 입법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시의원이 시장 직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 2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는 대부분 세리토스시처럼 시장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시의원이 시장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는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정치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회와

행정부 일체형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지방행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에 의한 행정감시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울러 공직분야에도 철저한 공개행정, 청렴행정 제도와 마인드가 확립되어 있어서 운영이 가능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행정참여가 일상화되고 책임행정이 구현되어 지방자치의 성숙도가 무르익을 단계에 도달하면,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라도 미국의 세리토스시와 같은 형태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통합형 지방정부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세리토스 시립 도서관의 장서 및 시설안내 》

세리토스 시청 바로 옆에 위치한 세리토스 시립 도서관을 견학한 우리 의원들은 서대문구의 5분의 1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시의 도서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크고 화려한 외형과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감탄하였고, 많은 장서 보유량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도서관을 보면서 왜 세리토스가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고 있고, 또 스스로도 자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용 도서를 총 장서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만권이나 보유하고 있는 점은 미래를 향한 투자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미국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이진아도서관과 시립서대문도서관이 있으나,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지식욕과 학구열을 충분하게 채워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명대학이 다수 위치해 있고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도 세리토스 시립도서관과 같은 현대식

대형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없진 않으나,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당장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대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도 동네 곳곳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교육열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알타데나 시니어 센터(Altadena Senior Center)

▷ 방문일시 : 2011. 9. 27(화) 14:00 ~ 15:30



《 알타데나 시니어 센터 앞에서 》

□ 시니어 센터 소개

미국의 시니어센터(Senior Center)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센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역 사회의 노령층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기관이다. 시니어 센터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식사제공, 취업교육, 경제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들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취미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시니어 센터의 역사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0년대 '노인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니어 클럽은 1940년대에 들어 명칭이 지금의 시니어 클럽으로 바뀌었으며, 1970년대 들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증가한 시니어 센터는 2005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 약 1만5천 개에서 1만6천 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천만 명의 노인들이 시니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시니어 센터는 4년마다 인구센서스 조사를 통해 필요한 수를 파악하여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새롭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 정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알타데나 시니어 센터 관계자와의 질의·답변 및 시설견학 》

□ 알타데나 시니어 센터(Altadena Senior Center) 운영 현황

미국 서부 LA카운티에 속한 알타데나 지역에 1980년 설립된 알타데나 시니어 센터는 LA카운티에 있는 15개 시니어 센터 중 한 곳으로, 매월 약 4,000명의 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약 100여명에 이르나 정규직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시니어 센터 운영자금은 주로 주 정부 지원금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는 도자기 만들기, 수채화, 유화 등 미술 관련 프로그램, 재즈댄스, 포크댄스, 라틴댄스, 서양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댄스강습 프로그램, 요가(Yoga), 타이치(T'ai Chi) 스트레치(Stretch) 등 건강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자원봉사로 의료 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웃간의 사소한 다툼이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중재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 방문 후기

우리가 방문한 알타데나 시니어 센터와 같은 노인복지시설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수가 절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의 주요 이용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속하는 노인들이 다수이고, 정작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층의 노인들의 이용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미국의 시니어 센터와 같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최소한 각 동마다 1개소 정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의지할 곳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저소득층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미국의 시니어 센터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액에 버금가는 비율의 운영비를 일반시민, 기업체,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은 점이였다. 해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시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SF 공공 도서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시)

▷ 방문일시 : 2011. 9. 23(금) 15:00 ~ 16:00

□ 시설 현황

- 시설명 : San Francisco Public Library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의 공공도서관
- 자료현황 : 7,200만권
- 연 이용객 : 2,100만명
- 운영시간 :
 - 월요일 : 10시 ~ 6시

화, 수, 목 : 9시 ~ 8시
금요일 : 12시 ~ 6시
토요일 : 10시 ~ 6시
일요일 : 12시 ~ 5시



《 San Francisco 공공 도서관 견학 》

□ 도서관 견학 내용

‘SF 공공 도서관’은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 Civic center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아시안 아트 뮤지엄(Asian Art Museum) 건물 맞은편에 있다. 지하에서 지상 6층까지의 건물이 예술적으로 디자인 되어 있어 입구에서부터 도서관은 건축시설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각 층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오디오룸, 스터디룸, 키즈 스페이스 등으로 다양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 1층에는 안내데스크 책과 비디오 영상물을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기계, 도서관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요금과 벌금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설이 추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1층에 새로이 설치된 오디오 비주얼 센터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한다. 도서관 개방시간이 요일별로 다른 점은 낯설고 색다른 모습이었다.

□ 방문기관 평가

도서관 내부구조가 예술적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에서 제일 먼저 감탄을 하게 된다. 그리고 2층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으며 책과 예쁜 소품들로 전시된 모습들이 도서관 같지 않게 무척 예쁘고 인상적이었으며, 여러나라 언어로 된 책들 중에 한글 책도 눈에 띄어 무척 반가웠다.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마주하고 있는 도심의 'SF 공공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접근 편리성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다. 도서관이 도시의 제일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하더라도 미 의회도서관만 건재하다면 복구는 시간문제다”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하는 얘기다.

다만 어느 나라에서나 대출자료의 분실, 훼손 및 오손 회수 불능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색 사업으로 ‘연체료 대신 음식을’ 캠페인을 통해 장기보관 가능한 음식 등을 기부하도록 하여 필요한 단체에 다시 기부하고 있으며, 연체하게 된 재미있는 이유를 제시하면 연체료 납부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은 찢긴 책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지역 미술가들에게 그 책들을 주고 그걸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게 해 도서관에 전시하곤 한다고 한다. 공공 재산인 도서관의 책을 아끼자는 재미있는 캠페인이다.

다만 요즘 미국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도서관 입구, 화장실 복도 등에서 너무 많은 노숙자들을 볼 수 있었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공간이라는 점을 새롭게 실감할 수 있었다.

4. 샌프란시스코 나라는행 견학 (NARA BANK)

▷ 방문일시 : 2011. 9. 23(금) 11:00 ~ 11:30

□ 나라는행 소개

나라은행은 1989년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은행으로 시작, 2000년 미국 주요도시 전역에 지점망을 구축하여(22개 지점) 한인은행 중 나스닥에 최초로 상장한 은행으로서 지난 5년간 자본금이 500%이상 증가 했으며 미국 서부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최고의 한국교포 자본 은행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은행으로 자본금이 약30억 달러, 고객 예탁금이 22억달러, 직원은 약 380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03년 한인은행 최초로 한국부동산 담보대출을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상공인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상품인 상업용 부동산과 사업용자, 국제무역용

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금융 상품과 보험 상품 분야에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금융업계 4위인 Center Bank와 합병을 최근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합병 후에는 미국 한인은행들 중 가장 큰 은행으로 40개의 지점을 가진 은행으로 자본금 51억 달러의 초대형 은행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점장은 자랑스럽게 설명하였다.

특색사업으로 나라는행은 2001년부터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10만달러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으며, 2011년에도 나라는행 장학재단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각종 액티비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청소년 45명을 선발해 1명당 2,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라은행이 발전되어 미국사회 한인들의 금융커뮤니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나라는행 운영현황 설명 (지점장) 》



《 나라는행 샌프란시스코 점 내부모습 》

Ⅳ. 주요도시 및 국립공원 등 답사

◆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California)

	 <City Hall> 도시개요 설립 - 1776. 6. 29 편입 - 1850. 4. 16 면적 - 600.7 km² 시장 - Edwin M. Lee 인구 - 805,235 명, 2010년
---	--

샌프란시스코시는 항구도시로서 많은 민족과 문화를 흡수해오면서 발전해온 도시로 미국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모든 분위기가 서로 중복되어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제2의 대도시이다. 샌프란시스코만에 접하고 골든게이트에서 남쪽 서안에 위치한다. 시가는 반도의 북쪽 끝을 차지하며, 북쪽은 골든게이트 브릿지(금문교)에 의해서 접한 만의 마린 반도에 이어지며, 동쪽은 샌프란시스코만을 넘어 오كل랜드와 마주 보고 있으며, 이 사이에는 길이 13.5km에 이르는 샌프란시스코-오كل랜드 베이 브릿지가 걸쳐 있다. 신흥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를 앞지를 때까지는 오랫동안 태평양 연안 제1의 항구이었으며, 지금도 세계 유수의 항만 도시 및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1936~1937년에 샌프란시스코-오كل랜드 베이 브릿지와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완성되어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원활해졌으며, 현재는 대도시권의 심장부를 이루며, 서부 지역의 경제·상공업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샌프란시스코항은 국내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과 동양에 대한 바다의 문호로 개방되어, 인근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광석·식품, 각종 기계류를 주로 적출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 타운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제 13번째의 큰 도시로 경제, 문화, 교육, IT 산업 등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로 성장하였고,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행지로 33번째로 랭크 되기도 하였다. 미국내에서도 아름다운 파스텔 톤

의 도시로 유명하며, 인기도시 베스트 10중에 상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이다. 이 좋은 도시도 1906년 8.3의 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파괴되었던 아픈 상처가 있다. 그 대비책의 하나로 도시 전체 건물이 70%가 3층 이내로 건축하였고 주택 등 건물들도 붙여 짓는다고 한다.



《 San Francisco City Hall, Golden Gate Bridge, 건물 》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문교는 1920년대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공사였다고 한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조수간만의 차, 교각간의 거리, 지진대에 8마일이나 근접해있는 지정학적 위치, 3천5백만불의 건설비용 등으로 다리건설이 회의적이었다. 다리 건설과 관련하여 금문교 앞 동판에 박힌 Men of Vision이라는 기념비 문구가 건설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리를 설계한 죠셉스트라우스는 공사비 모금에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미국은행 설립자인 지아니니를 찾아가다. 지아니니는 스트라우스에게 한 가지만 묻는다. “다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나요” 스트라우스는 관리되면 “영원히”라고 답한다. 그래서 둘은 의기투합하여 다리를 건설한다.

이 다리는 현재 미국의 상징으로 통하며, 길이 2.7KM, 폭 27M, 높이 227M로 샌프란시스코와 머린카운티를 연결하고 벽돌색에 가까운 적색이다. 1년에 한번씩 페인트를 칠하는데 전체를 칠하는데 12개월이 걸린다하니 1년내내 칠하는 셈이다.

◆ 라스베가스 (Las Vegas)

인간이 만든 최대의 걸작 라스베가스는 미국 최대의 도박도시이며 꿈의 도시이며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돌연히 나타난 오아시스와도 같은 도시이다.

1864년에 36번째로 주로 승격된 네바다주에 속해있다. 라스베가스에 첫 정착민이 들어선 것은 1855년으로서 솔트레이크에 본부를 둔 몰몬교에서 보낸 몰몬교도였다. 이들은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고 교육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라스베가스로 오게되나 이곳의 인디언들은 캘리포니아 인디언들 처럼 쉽게 몰몬교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라스베가스 주변이나 그랜드캐년 주변등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토속신앙을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몰몬교도들은 우체국을 세우고 인디언들에게 감자, 옥수수, 밀등의 경작법을 가르치며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1905년에 기차가 들어오면서부터 도시로서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되며, 1935년 후버댐이 완성되면서 라스베가스는 풍부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받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휘황찬란한 네온의 거리, 플레쉬를 터트리지 않고도 밤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유흥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 최대의 호텔 밀집지역으로, 전체 인구의 1/3 이상의 노동력이 호텔이나 카지노 같은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다. 호텔 한 개가 건설되면 1만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도시의 호텔 및 휴양지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립하여 거의 매일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행사관계자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 》

◆ 국립공원



요세미티 폭포
(Yosemite Falls)

요세미티 밸리는 높이 600m-1,200m 정도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돌아보면 크고 작은 폭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요세미티 폭포는 모두 2단으로 되어 있으며, 총 낙차는 739m 이다. 미국내에서 가장 긴 폭포이고, 수량은 5월에서 6월사이가 가장 많고 현재는 수량이 적었으며 웅장함과 주변의 경치와 아름답다.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Grand Canyon National Park)

그랜드캐년은 그 길이가 2백77마일이고 계곡의 넓이가 평균 10마일 그 깊이가 가장 깊은 데가 5천1백피트나 된다. 이것을 한국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그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 길이보다 좀더 길고, 그 깊이는 태백산의 높이에 해당한다. 보통 사진이나 묘사하는 표현문구에 따라 더 미화될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때 더 아름답고 더 크게 만들어 낼 수 있으나 그랜드캐년만은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고 글로 재현하려고 애썼지만 그 아름다움을, 그 웅장한 스케일을 근사치나마 표현해 낼 수 없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곳이다.

그랜드캐년만은 보지 않고서는 그 거대한 스케일을 파악할 수 없고 지상에 있으면서 상상을 초월한 그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없어, 그래서 그랜드캐년은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 라스베가스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South Rim 암석속의 기록된 화석이 유구한 시간을 말해준다면 계곡의 정상에서 강물과 닿는 밑바닥까지의 공간거리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실을 알려준다.

그랜드캐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19년 2월26일이며 매년 3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 2011년 제6대 1기 의회 -

선진자치제도 견문을 위한 미국 서부지역 해외연수를 마치며

서대문구의회 제6대 1기 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처음으로 전체 의원이 갖게 된 해외연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 미국을 방문하여 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전반에 대한 폭 넓은 견문과 연구는 우리 의회와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시대적 흐름을 깊이 간파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써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구촌이 빠르게 세계화·국제화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을 배우고 접목시켜 우리 의정에 적용함으로써 구민의 복리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해외연수국 세리토스 시청 및 시의회를 방문 전임 시장인 조재길시의원과 의 간담회를 통하여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도시환경, 교통, 자원, 사회복지제도 등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살펴보면서 인구 20만명 미만의 중소도시는 시장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시의원 중에 호선하여 효율성 있는 행정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활동으로 의회의 기능을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현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참고 수용하여야 할 부분도 많이 있었다.

이번 방문의 또 하나의 성과는 우리구 교육, 문화 관련 우호·협력 교류의향서를 전달 및 요청하여 조재길시장 등 방문단이 11월 10일 우리구를 방문하여 상호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향후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면 미국 서부지역 최고의 교육도시인 세리토스와 교류 및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7박 8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미국 서부지역 해외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과 수행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얻은 우리 의원들의 식견과 안목이 의회와 서대문구정을 크게 발전시켜 살기 좋은 미국의 자치단체처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 9월

서대문구의회 의장 황춘하